

영남동 — 영주산 남쪽 첫 마을의 비극

강 태 권

(제주 4·3연구소 연구원)

사람을 기다리는 마을

제주도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다. 그 마을마다에는 역사가 있다. 마을세가 적어지고 행정적인 편리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합쳐지기도 한다. 마을 이름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마을의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법정 리와 행정 리로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여 역사와 같이 숨쉬다가 마을 자체도 없어지고 다른 마을과 통합되는 과정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마을은 없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마을을 보았으니, 서귀포시 영남동이 그 마을이다.

내가 영남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영남마을 동북쪽 들판에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군경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고, 그 시신들은 수습할 사람조차 없어 지금도 뒹굴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였다.

1994년의 일이다. 이미 연전에 다랑쉬굴에서 열 한 구의 시신이 발굴되

어 세인의 주목을 받은 일도 있었고, 그 해에는 발이오름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굴되는 등 4·3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었다. 영남이라는 마을과 버려진 시신들을 발굴해 보자고 몇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그 진상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막막한 일이었다. 우선은 증언자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마을의 내력을 훑어볼만한 자료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하여 45년이 넘도록 노상에 방치된 시신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는 생각이었다.

영남에 대해 알고 있을 것같은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영남 마을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영남의 아랫마을에 살던 용흥, 강정 등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증언마다 거의 몰살하여 그 마을에 대해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에 접수된 4·3피해신고서들도 훑어보았다. 영남 마을의 위치를 어림짐작하고 인근의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영남이라는 마을을 접하였을 때, ‘아 제주도에도 이런 마을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 때는 <서편제>라는 영화의 감흥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속에 남아 있을 때였고, 남도의 풍광이 여인네 웃고름 속의 속살처럼 뽀얗게 아른거릴 때였으므로 영남동의 모습이 그렇게 다가섰을 거였다.

그 때는 봄이었고, 가을과 겨울을 지내면서 알몸인 듯한 마을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았으므로 영남 마을의 곳곳마다 눈길을 주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이 산촌 마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보다는 아직도 제주도에 역사의 발자취를 간직한 마을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경이감이 더 컸다고 할 것이다.

둘러본 마을은 옛 마을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부는 밭으로 변하였으나 마을의 동편으로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올래’의 모습이 돌담을 사이로 하여 드러났다. 서편 끝과 동쪽 끝으로 마을 사람들이 마셨을 우물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의 뒤로는 팔뚝 굵기의 대나무들이 뽕뽕하게 들어차 있었으며, 집터였던 곳들마다에 가는 대나무들이 흔들리고



▲ 영남동 전경. 계단식 밭을 보면 화전 마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있었다.

과연 이 마을에 몇 호의 집들이 있었으며, 4·3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인가. 이 마을은 언제 설촌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인가.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의문을 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이후로 근 4년 사이에 이 영남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만나 보았다. 열 차례 가까이 마을도 둘러보았다. 인근의 판관 마을과 증언 속의 굴을 찾아 하루종일 숲 속으로 들어서서 다녀보기도 했다.

영주산 남쪽 첫마을 '영남'. 아무리 그 지취를 좇으려 해도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잃어버린 것들이어서, 마침내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들도 많았다.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씩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시신조차 거두지 못해 한라산 자락의 바람에 삭아들었을 그들의 운명과 함께 잃어버린 삶의 이야기들은 끝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글은 영남 마을의 복원을 꿈꾸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남 마을 사람들의 70퍼센트 이상이 4·3으로 희생되었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이후에 거의 운명을 달리하여서 복원에 이르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안되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했고, 숨어 있던 자료들을 찾아내어 짜맞추듯이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것이 영남 마을의 현실이고, 영주산 남쪽 첫 마을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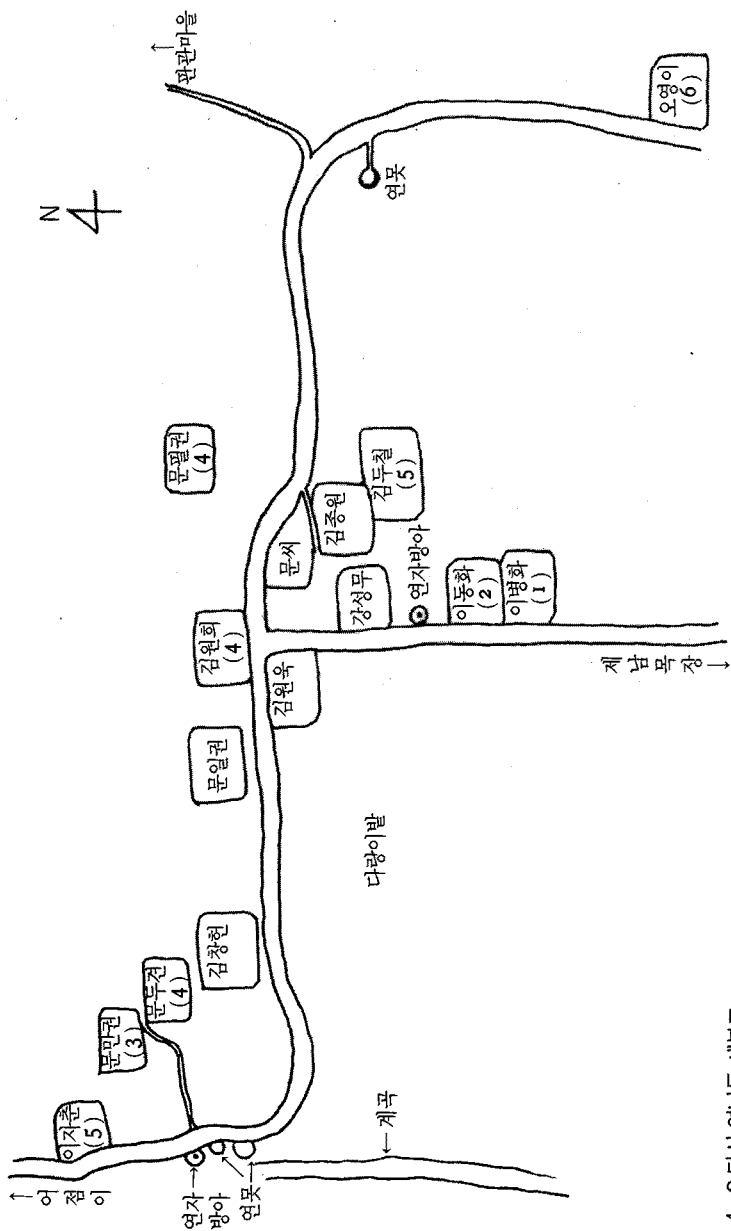
화전 다랑이밭의 숨결

영남동(瀛南洞)은 행정구역상 현재 서귀포시 강정동에 속해 있다. 하지만 토지의 지번은 영남리로 되어 있어, 없어져 버린 마을의 자취를 확인해주고 있다. 영남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시에서는 서부산업도로를 따라가다가 회수를 거쳐 신시가지 위쪽으로 난 중산간도로를 따라간다. 신시가지에 미치기 전인 궁산동과 월산동 위쪽에 영남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수 위쪽의 새로 뚫리고 있는 산록도로를 통할 수도 있다.

이 영남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군데인데, 월산동의 동쪽으로 들어가면 호근리 공동묘지를 거쳐 시멘트 길이 되어 있고, 2킬로미터 가량 올라가면 일반 차량으로는 올라갈 수 없게 되는데, 거기서 1킬로미터쯤 올라가 서쪽을 보면 영남 마을이 보인다.

농업용 차량으로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으므로 영남동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한다.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입구쪽은 제남목장이다. 월산의 서쪽에 있는 궁산동 입구를 따라 올라가면 서쪽으로 도순 녹차단지가 펼쳐져 있고, 1킬로미터를 더 올라가면 제남목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다.

녹차단지에서 보면 위쪽으로 전에 없던 산록도로가 보이고, 산록도로



▲ 4·3 당시 영남동 세부도.
 집터마다 세대주를 적었으며, 이름 밑 숫자는 그때 희생된 피해자 숫자이다.

의 가장 큰 다리가 눈 앞에 보인다. 제남목장으로 가는 길은 자동차 한 대 정도 드나들 수 있는데, 이 길은 제남목장에서 끝난다. 그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소로를 따라 1.5킬로미터 정도를 올라가면 영남 마을이 있다. 잡목과 잡초들이 우거진 여름만 아니라면 마치 <서편제>에 나오는 전원적인 배경을 가진 마을이다.

이 두 가지의 길 외에 근래 위쪽으로 산록도로가 뚫리면서 그 산록도로에서 억새밭 두어개를 내려오면 영남 마을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길은 안내자가 없으면 택하기 어렵다. 초행인 사람이라면 제남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영남 마을 안에서 보면 서남쪽은 도순 녹차공장이며, 북쪽으로는 어점 이악이, 동남쪽으로는 고근산이 있고, 그 고근산과 겹쳐져서 범섬이 보인다.

이 영남동에는 현재 전씨 노인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30여 년을 살고 있지만, 4·3이 있기 전 마을이 융성했을 때는 50여 호가 넘는 작지 않은 마을이었다.

영남동은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 없어서 설촌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당초에 영남 마을 위쪽으로 몇 호씩 흩어져서 화전을 일구어 생활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영남 마을로 모여들었다. 물론 영남 마을이 생기기 전에 위쪽에 판관 마을 등이 있었으나 그것을 좇는 것은 피하였다.

영남 마을 출신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에 영남동이 생겼다고 한다.

저의 선친이 살아 있으면 96세인데 어점이악 앞에 '왕하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점이악 서남쪽 뒀 것인가. 하천변인데 거기에 거주를 하다가 저의 선친께서 여덟살 때 판관이라는 마을로 이주를 하여 오고, 영남으로 와서 살다가 20여년 후에 영남으로 모아진 것이죠. 지금 산록도로가 뚫리고 있는 위

쪽 1km쯤에 ‘코빼기동네’가 있었고, 김씨 집안 세 가구가 살다가 후에 영남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김창현씨 집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4·3사건이 나던 해(1948)로 영남 마을이 생긴 것이 92년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설촌 시기는 1850년대가 될 것입니다. (문두현, 63세, 판포리 거주)

영남 마을 사람들은 원래는 북제주군과 제주시 등지에서 살기가 어려워 어점이악 인근부터 화전을 일구다가 점차 다랑이밭이 형성되어가자 마을을 이루며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 마을 출신의 이광찬씨는 고조부 당시에 제주시 노형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4대를 살았다고 하며, 문생(78세) 할머니는 모간(제주시)에서 증조부 때 영남으로 왔다고 한다.

영남 마을 사람들의 생활경로를 보면 어점이악 부근의 ‘왕하리’에서 현재의 산록도로 위쪽 판관 마을로 옮겼다가 4·3 당시는 영남 마을로 정착이 된 것이다.

판관 마을은 조선시대 판관을 지낸 사람이 와서 살았다는 곳이라 해서 그렇게 불려졌다. 이 판관 마을은 영남 마을로 주민들이 옮겨온 후에도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솥을 굽는 솥막터 등이 남아있다. 이 판관 마을은 일제 초기에 대부분 영남 마을로 내려왔던 것 같다. 문생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 판관 마을이 아닌 영남이고, 어릴 때에 고사리를 꺾으러 올라갔을 때는 건물이 없는 집터들만 있었다고 했다. 이 판관 마을은 지금은 잡목과 잡풀들로 드나들이 힘들어졌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나 말을 방목할 수 있을만큼 넓게 펼쳐진 들판이었다.

영남동이라는 지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정현이 있을 당시(조선 중엽) 대정현에서 마을 이름을 적어 올리라고 하므로 마을의 촌로 중에 한학(漢學)을 한 사람이 ‘영남(瀛南)’이라는 마을 이름을 지어 올렸으며, 그 이후로는 기록에 영남이라고 적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의견도 있다. 마을 이름을 적어 올리라고 하여 마을 중을 대정현에 갔다오라고 하였는데, 이 종에게 대정현감이 너희 마을 이름을 어

떻게 하기로 하였느냐고 물으니까, 종이 영남 마을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영남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기록에 영남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1898년에 있었던 '방성칠의 난'이다. 화전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이 민란에 영남 마을 사람들도 참여를 했다. 특히 강제평(姜齊平, 당시 28세)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보인다. 그는 민군을 이끌었던 장두(先軍額)였다. 그는 이 민란의 주도세력으로 참여하였다가 방성칠을 비롯한 주도자들이 관군에게 잡힐 때, 같이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는다.¹⁾

당시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일화에 따르면, 민군이 마을에 와서 준위와 경민장(이장)에게 호적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민군은 영남을 지나쳐 호근리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후에 관군이 영남에 들어와서 한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나 확인할 길이 없다.

방성칠의 난 이후 1901년 신축년 민란 당시에도 영남 마을이 민란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신축년 당시에 얘기는……. 영남에 사람이 살기는 살았는데, 식자가 없는 분들이 전한 얘기인데 백사훈(원)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기백이 좀 있는 분이었어요. 방성칠이, 이제수네가 관련이 있었어요. 그네가 도망을 가면서 영남을 거쳐서 피해갔는데, 관군이 영남에 이네들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관군이 오죠. 와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다그치죠. 그쳐서 가서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는데 당신네가 뭔데 내어놓으라 말라 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 없다고 백사훈(원)씨가 얘기를 하죠.

1) 1898년 방성칠의 난에 대해서는 조성운,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4집, 문학과지성사, 1986.

그러니까 관군 대장, 그 사람이 납읍 사람 고유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어디 사람이냐? 난 모간 '세괴양'²⁾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이 산골에 당신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청산백옥도 진퇴에 묻혀있는 격이다. 어찌 그대같은 양반이 이런 벽지에 눌러 사느냐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문두현)

웅성했던 마을의 지취

일제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영남리는 일제 초기부터 하나의 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있었던 법정사 항일운동³⁾ 당시의 재판기록에도 영남리가 나오며, 특히 1928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생활상태조사(其二) : 제주도』에도 중문면을 11개 리로 나누면서 영남을 하나의 행정 리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리명은 일제의 패망시까지도 변동 없이 통용되었다.

1918년에 있었던 법정사 항일독립운동에도 이 영남 마을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4백 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대규모 운동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기록에 의하면 총 66명이 검거되어 2명의 옥사자가 발생하였으며, 31명이 최고 10년에서 최하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언도받는 등 형량 부분에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검거된 사람들 66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사람이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김두삼(金斗三), 서귀 영남 495, 남자, 25세, 징역 1년 (옥사)/김항율(金恒律), 영남 267, 남자, 39세, 벌금 30원/박경흠, 서

2) 세괴양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강순현(80세, 제주시 용담동)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세괴양은 지금의 제주시 용담동 한두기 지경이라고 한다.

3)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은 「1918년 법정사 항일투쟁 성역화 사업 기본 계획(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귀 영남, 남 44세, 불기소/이자춘, 43세, 불기소/원성춘, 24세, 불기소/김병일, 33세, 불기소' 등이다.

김두삼이라는 분이 저의 숙부님입니다. 이 분이 목포형무소에서 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얼마 전에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남 마을이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님네 일가분들은 호적상으로는 모두 같은 영남동 49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원, 63세, 강정동 거주)

위 사람들 중 이자춘은 4·3 당시에 영남동 근처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군경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서귀포시청에서 확인한 영남리 출신 무연고 호적을 살펴보면 송씨, 문씨, 이씨, 고씨 등 이 당시 성씨들만 보더라도 마을이 가장 융성하였을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부 사람들은 해안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해방이 되면서는 20여 호만이 남아 있게 된다.

영남동의 마을 역사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다. 산촌에 속하는 이 영남동에도 서당이 있었다. 서당 훈장을 했던 사람은 김봉성(金奉成)씨였다. 서당은 마을의 중앙에 있던 김원희씨 집에 있었으며, 마을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당에 다녔다.

저희 집은 영남 마을 서쪽 맨 위에 있었습니다. 어점이악으로 올라가는 계곡을 따라 붙은 곳이었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근처에 몇 호가 더 있었습니다만 해방 즈음이 되어서는 해안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공장의 운전수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네가 영남 마을에 살았는데, 원래는 제주시 노형동이었는데 고조부 때에 그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

다. 아마 토지도 없고 살기가 어려워서 화전을 일구어 살려는 요량으로 그곳에 정착을 하였던 지 모르겠습니다. 영남 마을에서는 매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전을 일구었으므로 토질은 그런대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일본에서 돌아왔으므로 그 당시에 우리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색달리 노인이 와서 서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곳에 글방을 차렸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용흥이라든지 월산·염돈 등지에서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야 글을 배우는데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윤번제로 이 서당 선생에게 일주일씩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집에서 일주일을 기거하다가 다음에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곤 하였지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자문」이나 「동몽선습」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좀 나이가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사서삼경을 깨우치곤 했습니다. 우리 또래에서는 나보다 두 살 위인 문두현씨가 총기가 좋았고, 저도 제 또래에서는 글을 깨우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여 보면 일 이등을 다투곤 하였습니다. 일등을 한 집에서는 일등을 하였다는 턱으로 떡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찬, 60세, 서귀포시 법환리 거주)

김봉성 훈장은 원래 색달리(서귀포시 색달동) 출신이다. 그는 열 아홉 살에 색달리에서 화재를 만난다. 솜옷에 불이 붙어 몸까지 타고 들어가서 심한 화상을 입은 그는 결국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야 했을 정도로 다리를 절어야 했다. 그는 색달리를 떠나 20여년 이상을 용흥리와 도순·영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학동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해방 즈음에 들어서는 영남 마을에 정착을 하여 이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을 하였다.

김봉성 훈장은 1949년 초 대토벌 당시에 어쩔이 근처의 궤에 숨어 있다 가 군경민 합동토벌에 잡혀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난자당하게 되는데, 당

시 토벌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김봉성 훈장에게 글을 배웠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훈장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까봐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다고 한다.

영남 마을의 경우 화전은 중요한 생활수단이었다. 초기에 화전을 일구어 다랑이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되는데, 주 작물은 고구마, 메밀, 콩, 산디(밭벼) 등이었다.

당시 영남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는 법은 단순했다. 보통 세 종류의 땅으로 나뉘었는데, 가장 넓고 많은 땅이 초지다. 지금은 인적이 끊어져서 잡목이 우거져 있지만 4·3 당시까지 영남의 위쪽 반경 2킬로미터 안은 거의 대부분이 들판이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땅은 초지를 그대로 소로 밭을 갈 듯이 일궈서 농사를 지었다.

그 다음으로는 불을 놓아야 했던 화전지대인데, 이곳은 대부분이 가시덤불과 잡목이다. 이 가시덤불과 잡목들이 우거진 곳에 먼저 불을 놓았다. 그 다음으로는 호미로 불탄 땅을 긁으면서 씨앗을 뿌리면 그것으로 농사가 되었다. 첫해에는 불을 놓아 타고 남은 재의 기운이 강하였으므로 농사를 짓기에 좋았다. 또한 가시덤불 밑의 땅은 자갈도 없는 옥토였던 것이다. 가장 험한 땅이 비탈진 다랑이 자갈밭이다. 이 자갈밭은 밭을 갈기도 어려웠으므로 파비 등을 이용하여 개간했다.

화전으로 일군 곳이나 초지를 갈아엎은 곳 할 것없이 영남의 인근에서는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 특히 고구마와 조 등이 풍작을 이루곤 했는데, 고구마는 크기가 무우만큼씩 했으며, 조는 알곡이 어린애 팔뚝만 했다고 한다. 또한 메밀과 산디(밭벼), 콩과 작물들도 작황이 좋았다.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남 마을에 남아서 혼자 5만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전계삼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 조나 콩 등은 아주 좋다고 한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 바이러스가 있어서 거의 곰보가 지고, 그래서 상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처럼 영남 인근은 농사가 잘 되었으므로 화전을 일구던 사람들이 자



◀ 영남리의 동쪽 우물.

샘 마실 사람이 없어 대나무들
만 스러져 눕는다.

리잡기에는 적당한 곳이었다. 처음에는 친인척들이 몇 호씩 집들을 지어서 살다가 해안과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서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숲을 굽기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숲은 영남 마을 안에서 구운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판관 마을이나 그 주변의 16임반, 17임반의 밀림선이었던 것이다.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연감』을 살펴보면 1914년에 영남지경의 16임반에서 일본인이 벌채 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23년에 이경화(李庚化)라는 사람이 신탄(薪炭)을 만들 목적으로 나무 벌채 허가를 받은 기록이 보이고, 1924년에는 이보겸이라는 사람이, 1928년과 1929년 두 해에 걸쳐 문일권(文日權)이라는 사람이 신탄을 만들 용도로 벌채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다. 문일권씨는 당시 목수였다.

일제 말기에 들어서면서 영남 마을의 인구는 부쩍 줄어들었다. 일제의 정책이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영남동과 같은 산촌은 그 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공출과 징병은 영남 마을의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징병의 경우 마을에서 가장 훗칠한 청년 김원희씨가 나가 있었다.

영남 마을의 경우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냈다는 말도 있었다. 일제 말기에 열대여섯 살이 되는 소녀들을 골라 일본으로 보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자들은 거의 대부분 4·3을 거치면서 희생되어 증언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김정희(1936년생, 서귀포시 중문동)씨는 “언니들이 일본으로 가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그 때는 무엇인지 몰랐으나 요즘에 들어서 정신대 이야기가 나오길래, 아 우리도 저험한 꼴을 당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북은 시절의 시작과 끝

해방이 되면서 산촌 마을에도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들 가운데는 김원희 등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광찬씨 일가처럼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구는 줄어들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을은 언제나 평온했다. 공출이 없어졌으므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달리 걱정하지 않았다. 학동들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깥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작은 산촌 마을에 조적을 꾸릴 일도 없었으므로 그 추이만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씩 다른 마을 사람들이

거쳐가기는 하였지만, 그 대상은 김원희씨 집과 마을 구장이었던 김창현씨 집 정도였다.

1946년에 제주도 전역에 호열자가 창궐하면서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극히 꺼리기도 했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켜서기도 하였다. 지금도 영남 마을의 서북쪽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마을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던 보초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보초막은 호열자 당시 다른 마을 사람들의 출입을 막던 용도였다고 한다.

4·3 당시, 영남 마을의 김원희는 유격대측과 교류가 있었던 마을의 중심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일제시대에 군인으로 만주까지 갔다왔으며, 돌아온 후에는 건준, 인민위원회 등에도 참여를 했던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언자 가운데 대부분이 유년시절에 4·3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증언의 단절 역시 4·3의 상흔이었다.

4·3 당시의 마을의 상황을 보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버려서 1948년 8월 경에는 16호에 인구 92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이장은 김창현씨가 맡고 있었다. 이 92명은 1948년 여름에 군인들이 올라와서 마을의 인원을 파악할 때 확인한 숫자였다.⁴⁾

당시 남아있던 성씨로는 김씨와 이씨, 문씨 등이 많았으며, 오씨, 강씨 등도 있었다. 국방경비대 군인들이 마을을 드나들기는 했으나 마을에서 피해를 입거나 잡혀가는 일은 없었다. 여름이 지나면서도 해안 마을에서는 가끔씩 사건이 벌어졌으나 영남은 조용했다.

여름이 지나면서 동네에서 보면 중문이나 도순, 염돈쪽으로 먼지가 뿌영게 일어요. 군인들이 왕래를 하는 것이지요. 얼마간이 지나면서는 총소리가 요란

4) 문두현씨의 증언.

하게 나는 게 예삿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남 마을 근처에는 토벌대가 거의 올라오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원희씨 집을 중심으로 하여 북군에 있던 산쪽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회의를 하기도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많은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대신에 아래쪽에서 피난민들이 마을에 있으면 토벌대에게 죽을까봐서 피난으로 영남 마을을 거쳐 가족 단위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보였습니다. (문두현)

그러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영남동은 곧바로 풍비박산이 난다. 영남동에 대한 소개명령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948년 음력 10월 20일 경에 마을이 불탔다는 것이다. 16호 중에 1948년 10월 18일(음)에 유일하게 소개를 내려간 집이 문일권씨 집안이고, 나머지 열 다섯 세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일권씨는 학식도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산불은 해불은 때이니 산 근처에 있으면 해를 당한다”고 하면서 친척들이 있는 서호리로 내려와서 유일하게 집안에서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당시 김봉성 훈장은 잠시 몸을 피하면 이 난리는 금방 끝날 일이라고 마을 주민에게 말하였으며, 주민들은 거의 그 말을 믿고 마을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토벌대가 모든 가호들에 불을 놓고 소개를 하자 마을 사람들은 동요를 하게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 지를 몰랐던 것이다. 이 즈음에 일부는 해안 마을로 들어와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아 다시 영남 마을 근처에서 숨어살다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집도 다 불붙이고 해가니까 이제는 안되겠다고 서호리로 소개를 내려갔습니다. 서호리에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으니까 그곳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서호리에서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받아주면 받아준 우리까지 죽으니 어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갈데도 없고 해서

다시 영남 마을로 돌아왔어요. 며칠을 지내는데 토벌대가 올라와요. 우리 집 안 사람들과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바로 위쪽에 올라와서 숨어서 보니까 마을이 전부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기는 틀렸다고 하면서 마을 위쪽으로 피난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광찬)

열 다섯 호의 사람들은 피난 초기 가족별로 무리를 지어 다녔던 것 같다. 김중원씨 일가는 호근리 마을 공동목장 근처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이광찬의 가족들은 문만권 노인의 안내를 따라서 토벌을 피해 영실 근처까지 숨어들었다. 특히 문씨 할아버지는 한라산 남쪽의 지경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서 어느 계곡에 가면 무슨 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숨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곤 하였다.

그러다가 겨울이 깊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 먹을 것이었다. 메밀은 날 것으로 먹을 수 없었으므로 땅을 파고 숨겨두었던 고구마 등을 밤중에 마을 근처까지 내려가서 가져왔다. 일부 사람들은 서흥리 위쪽에 있던 미오름으로 피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영실의 밀림선 안으로 피하였던 것이다. 문만권 노인의 딸 문생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저는 도순 사람과 결혼을 하여 살다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에 와서 사는데 난리를 만난 것입니다. 영남이 웃드르라 아래로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난리가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지 그리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치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토벌대가 보이는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겨울을 영남동 위쪽에 있는 밀림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밀림선까지는 토벌대의 힘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들은 그만큼 토벌대에게는 안전하였으나 대신에 추위와 굶주림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들어서면서 토벌

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었는데, 이 토벌과 함께 비축해 두었던 식량마저 동이 나면서 피난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젠 더 이상 배가 고파서도 살 수 없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디 있어도 죽는다고, 무조건 죽든 살든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중에 토벌대를 만났지요. 토벌대는 우리가 보이자 무차별로 총을 쏘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동생을 업고 뛰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총에 맞아 죽고, 한 살짜리 동생은 총알이 비껴갔는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쫓아서 마을로 내려와 살기는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부 죽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토벌대에게 잡혀서 길 안내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지로인으로 생활을 얼마간 하다가 군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광찬)

이들 뿐만이 아니라 열다섯 세대 전부가 마을 근처에서 비슷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948년 12월(음)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근 목장지대와 골짜기의 켜 등지에 숨어지내다가 토벌대에게 발견되어 무차별 학살된다.

나는 토벌을 올라올 때 마을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들도 같이 숨어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는 1949년 1월 23일(음) 경에 토벌대에게 사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도 우왕좌왕하다가 어머니와 헤어져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가 되어 있었지만 워낙에 험악한 시절이라 밤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비장해 두었던 고구마같은 것을 찾아서 먹으면서 산 것이죠. 피해 다니던 우리집과 우리 사촌 등 두 가호 열 한 명의 식구 중에서 저 혼자 살아남은 것이죠. 그 때 오빠와 사촌 오빠네는 한 두살난 애기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죽은 것으로



◀ 영남동에서 가족 열 다섯을 잃고
평생을 슬픈 눈으로 살아온
김종원씨.

알고 있습니다. 그해 봄이 되어서 도순리 지서로 귀순을 내려왔어요. 물론 혼자였습니다. (김정희)

현재 영남동 출신으로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김종원일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4·3피해신고를 받으면서 한 사람이 신고한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가족이 김종원의 일가이다. 도의회에 열 다섯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신고를 한 김종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개를 내려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마을 근처에 숨어지냈습니다. 이 난리가 얼마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토벌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근리 마을 공동목장 근처로 피해 지내다가 소년케니 뒤편 하는 곳에 숨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쌀오름(미악) 근처에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처에서 숨어지내는데 토벌대가 토벌을 올라

와서 발견되었어요.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데 여러 사람이 죽고 제 누님은 나무 밑에 폭 하고 넘어졌는데, 나무 위에 있는 눈이 떨어져 덮이는 바람에 그 눈속에서 토벌대가 하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토벌대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도끼로 잘라서 생포한 사람들에게 깊어지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누님은 그렇게 산에서 숨어지내다가 나중에 하도 배가 고파 보리 이삭을 잘라 배를 채우려고 내려왔다가 토벌대에게 발각되어서 죽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토벌대는 토벌의 과정에서 잔혹한 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보이는대로 사람들을 사살하고, 시신의 목을 잘라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다. 숨어지내던 여성들을 잡았을 경우에는 옷을 전부 발가벗기고, 시신에서 잘라낸 사람의 머리를 지고 오게 하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증언들은 영남만이 아닌 서귀포시 호근동이나 서흥동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방 폭포에서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학살된다.

김종원은 귀순해서 내려와 살다가 1950년 6·25 발발 이후에 산으로 납치당하는 수난을 다시 당하게 된다. 김종원의 증언을 계속 들어본다.

토벌대에게 잡혀와서 마을 성을 지키는데 6·25가 나던 해에 산사람들이 내려와 월평에서 성 지키는 것을 납치해 갔습니다. 당시 석달 가까이 산에서 생활을 했는데 입쪽에 커다란 종기가 나서 누워만 살았습니다. 김성규라는 사람이 산에서 대장이었습니다. 저의 백부인 김창현씨가 일제시대부터 김성규씨 하고 면에 일도 같이 하고 해서 조카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잘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 말고도 납치되어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호리 여자들이 많았는데, 내 옷이 다 터져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곁에 와서 옷을 꿰매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도 신문같은 것이 밑에서 올라와 세상 소식에 대해서도 얼마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석달을 사는 동안에 토벌대는 한 번도 만나거나 본 적도 없었지요. 그들은 토벌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숨어 지내는 생활도 끔찍했습니다. 하루는 앞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그 날 기회를 봐서 무조건 도망해 왔습니다.

김종원씨는 당시 입에 있었던 종기를 치료하는 데, 생살을 불에 달군 칼로 베어내어서 그 상처가 그대로 있다며 보여주었다.

죽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

4·3을 거치면서 영남동은 완전히 폐촌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대부분 피의 희생으로 대가 끊어져버린 집안도 많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유년기의 아동들이었기에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끔찍한 4·3을 잊으려고 노력하였다. 영남 마을도 출입을 하지 않았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 도순, 법환 등지로 한 두 명씩 흩어져서 살았다.

우리가 귀순해서 내려온 곳은 서귀포에 있는 단추공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처럼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꼴을 못보다가 그곳에서 밥을 주니까 죽든 살든 먹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것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렇게 먹은 밥 때문에 배가 아파 뒹굴면서 고통당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영남 출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으로 돌아가셨지요. 맨 동쪽에 살았던 오영이 씨네 일가에서는 어린 아이 하나만 살아남아 서촌 안덕 근처에서 산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집의 경우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젖먹이였던 어린 동생이 범환으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산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만나거나 도와주는 것을 꺼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는데, 그러다보니 저같은 경우에도 남의 모시(소나 말)를 돌보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고아원같은 데라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랬다면 학교라도 다닐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제 동생은 갓난 아기였는데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충에 맞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형제들이야 그후 몇 십년 동안을 고생고생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는 영남 근처에 가는 일도 조상 묘지에 별초하러 가는 일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광찬)

이광찬뿐만 아니었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의 행적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대가 끊어진 집안들이 많았으며, 어린 나이에 천애 고아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오영이씨 집안에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을 거듭한 결과 안덕면 사계리에서 7인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오문보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조사 말미에 만난 김정희 아주머니도 오문보씨와 다르지 않았다. 사촌오빠였던 김원희씨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는 어려웠던 시절의 살아온 얘기만 주섬주섬 풀어놓았다.

귀순해서는 서귀포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아이고, 여자아이 혼자 왔다는 것을 그곳에서도 불쌍하게 여겼는지 어디 갈 곳이 있으면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순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 갈데가 있어야지요. 열 세살의 나이에 계집아이 혼자 있으니... 그런데 나를 데리고 살겠다는

늙은 노부부가 있어서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네는 나를 쇠테우리를 시켰습니다. 나는 그것도 고맙다고, 소를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으로 우리 집 식구들을 완전히 다 잃어서 눈물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소를 몰고 드르(들판)에 나가면 눈물만 쏟아지고, 내 오빠와 올케, 어린 조카, 언니 두 사람, 어머니, 그리고 사촌과 사촌 올케, 사촌 조카 등을 다 잃었으니 우리집은 완전히 대가 끊어져버린 것이지요.

그 쇠테우리 일을 5년을 하다가 열여덟이 되니까 이제 나 혼자 독립해서 살겠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네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사태 후에 내가 독립해서 나와 살다가 해안 마을에 내려와 살던 친척들을 찾게 되었고, 그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집안에서 양자를 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오빠네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들로 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죽은 오빠가 아이를 낳고, 이제는 법적으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남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피해는 엄청나다. 열 여섯 호의 집들이 완전히 소각되었다. 그들 중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만도 52명에 달한다. 당시 인구가 92명이었다가 해안 마을로 먼저 내려온 문두현의 일가와, 이후에 월평으로 뒤따라 내려온 강성무의 집 등을 제외하면 70여 명 남짓했을 것인데, 이 가운데 52명이 희생되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섬 전체를 통틀어 마을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이 희생된 곳은 영남이 으뜸일 것이다. 열살이 채 못된 어린아이들도 15여 명에 이르며, 일가 족이 전멸한 집도 여러 집안이 된다.(지도 및 희생자 명단 참조)

1949년 대토벌 이후 영남동은 폐촌이 되었다. 봄이면 지천으로 솟아오르는 고사리가 들판에 가득한데도, 그 고사리를 꺾으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영남동 인근의 토질 좋은 농토는 한 해 두 해를 거르면서 잡목들이



◀ 영남동의 올래와 집터.
지금은 이 길을 밟아 이웃집에
다닐 사람도 없다.

우거지기 시작했다. 산야에서 죽어가 수습을 하지 못한 시신들이 목동이나 나물 캐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1960년대부터 자라기 시작한 잡목과 덩불들이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며 세월에 녹아 그 흔적을 찾기가 힘이 든다고 한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근처 궤에는 영남동 사람 이상옥의 시신이 아직도 방치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람들은 죽어갔으나 시신 역시 대부분을 찾지 못하여 헛봉분을 만들거나 비석을 세우는 것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대한 예를 대신하고 있었다.

해안 마을로 내려간 몇 안되는 사람들도 천형의 땅과 같은 영주산 남쪽의 첫 마을을 바라보는 것조차 꺼렸다.

영남 마을에 사람이 다시 찾아들기 시작한 것은 1961년 경의 일이다.

이미 강산이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천지가 변해 있었다. 시신들을 수습하지 못한 들판마다에는 땅보탬을 한 시신들의 뼈만 뒹굴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내려오곤 했다.

1961년, 이 영남 마을에 올라온 사람들은 10여 호쯤 되었다. 그들을 살펴보면 문만권, 이세중, 고태형, 이자훈, 강성무, 문두복, 문두현, 문재반(육지 출신) 등이었다. 이들은 4·3 복구마을로 영남동이 재건될 것으로 알고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1개 면에서 하나의 마을만을 재건하여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쳤고, 중문면에서는 천서동이 재건마을로 확정되었다. 영남동은 마을세가 약하여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에서 재건마을을 세우면 집도 공짜로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옥수수가루 등의 배급을 받으며 얼마간 생활을 하다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에 이들이 올라가서는 마을 근처에 나무들도 많았고, 지붕을 만들 수 있는 억새들도 많았으므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쇠막과 같은 집을 지어서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숯을 구으면서 생활을 했다. 숯은 백탄과 흑탄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백탄은 가마를 만들어서 구웠는데, 연기도 나고, 규모가 커야 했으므로 영남 마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다. 백탄을 굽는 것은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표고건조용으로 사용했다. 재건을 하려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흑탄을 구울 수밖에 없었다.

숯을 굽는 일 외에도 지붕을 이을 때 쓸 새를 해다가 생활을 하였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3~4년 사이에 영남동을 다시 떠나기 시작했다.

영남동을 지키는 노인의 고독

1966년,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영남 마을에 한 가족이 들어왔다. 전계삼(1928년 생)이다. 그는 전라북도 부안이 고향이다. 그런 그가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5년이였다. 그는 고향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전답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하고 65년도에 제주도로 관광을 왔다. 그는 관광을 하면서 제주도를 돌아다녔는데, 서귀포 부근에서 강군병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이 인연이였다.

사업도 실패하고 빚 청산을 하고나니 어디 관광이라도 다닌다고 제주를 왔 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될려고 그랬는지 강군병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와서 고구마를 심으면 호박만큼씩 하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는 66년 1월에 가족들을 데리고 직접 영남 마을로 들어왔어요. 와서 보 니까 사람들이 거의 내려가고 있었습시다. 내가 오기 전에는 배급도 일부 주고 그랬습시다. 내가 온 후에도 강냉이 가루를 주고 그랬는데, 나는 육지에서 와서 산다고 강냉이가루도 주지 않았어요.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가서 일하고, 그래서 밀가루 한 포도 받고, 한 포 반도 받고 그러면서 생활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이곳에 남아있 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농사가 잘 되었어요. (전계삼)

1970년대가 되면서 영남 마을에는 전씨네 한 가구밖에 없었다. 이미 버 려진 땅은 해안 마을에서는 관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고, 그 땅에 전씨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감귤을 심기도 하고, 당근과 배추 등의 작물들을 재배했는데,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만큼 농사는 잘 되었고, 돈도 좀 만질 수 있었다. 전씨는 이 넓은 땅을 혼자서 관리하 는 셈이 되었다. 70년대부터 한 해 5만여 평의 농사를 지어왔던 것이다.

영남동의 땅은 크게 균유지와 사유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제가 토지 측 량을 하면서 구분해 놓은 것이다. 당시 영남 마을은 화전으로 일군 임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측량할 돈만 있으면 농토를 소유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세부측량을 할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측량을 할 수 없었고, 측량을 하지 않은 땅은 국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 전계삼씨. “이렇게,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을 겁니다. 여긴 따사롭고 좋은 곳이지요.”

소유를 불문하고 국가의 땅에 농사를 지어도 제재가 따르지 않을만큼 자유로웠다.

4·3 이후 이 토지는 멸족한 가족의 피붙이나 사촌, 혹은 외가의 사람들이 소유권을 찾아간다. 그러나 이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거의 대부분 육지 사람들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투기는 영남의 인근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만 것이다. 당시 영남 부근의 땅들은 평당 30원 정도에 팔렸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래서 현재 영남동의 땅은 대부분 육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관리를 안하다보니 잡풀들이 우거지고 황폐화되어서 농사를 짓던 땅조차 그 흔적이 묘연했다.

이 많은 땅들 중에 일부 농사가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땅에 전계삼 노인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다. 77년 즈음에는 유채만 5만여 평을 갈아, 영남 인근이 온통 노란 유채꽃 물결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전씨 노인은

매년 5만여 평의 땅에 농사를 붙인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누구 한 사람 내 땅에서 왜 농사를 짓느냐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저 밭이 있으니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언제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일이었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땅들이 누구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농사를 붙여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누가 농사를 지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땅이라고는 고작 두 필지 뿐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육지 사람들의 소유지요. 저 남쪽으로는 제남목장의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가 좋지 않으니깐 그것도 문제이지만, 논(일꾼)을 빌리는 것이 문제지요. 논값이 너무 비싸서 그 값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게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 혼자서 이곳에만 살다보니까 어수룩하게 여겨선지 농협같은 데서도 별로 신경을 안써요. 콩이 한 해에 400~500가마가 나오는데, 농협에서 안 사서 야매로 팔았어요. 작년에는 시일이 넘었어도 받아주겠다고 하니깐 8만원짜리 9만 7천원에 팔았어요. 김정콩도 26가마가 있는데, 안팔아요. 작년에 14만원 하는 것이 6만원이라는데 팔 수가 있어야지요. (전계삼)

전씨 노인은 외롭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떨어버린다. 어쩌면 그 고독을 즐기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전기나 수도 등 문화적인 혜택도 전연 없는 오지에 살고 있지만, 자식들이 살고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내려가서 살 생각은 전연 없다고 했다. 60~70년대에는 약초를 캐는 사람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오는 사람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풀일 날이 없었다면서 해안 마을로 시선을 주기도 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겨울의 막바지에 전씨 노인을 다시 찾았을 때 언제까지 여기에 살 것냐고 여쭙었다. 전씨 노인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을 겁니다. 여긴 따사롭고 좋은 곳이지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햇살이 삼일만 비추면 다 녹아요. 죽어서도 여기 묻힐 겁니다.

한낮인데도 노인의 방은 어두웠다. 각짓불 배롱한 방에서 대추를 끓인 물에 커피를 타 주며,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그 무료함을 농사일로 달랜다고 했다.

전세 노인의 말을 듣고나니 계절마다 달라보이던 이 산촌은 전에 없이 을씨년스러웠다. 키가 훌쩍 커버린 대나무들과 하늘로 치솟은 삼나무는 영남 마을의 뒤쪽을 완전하게 가리고 있었다. 언젠가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제주도의 자연풍광을 완전하게 망쳐놓은 주범을 삼나무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적절할 수가 없다.

이런 주위의 풍광 말고도 마을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혼자 살던 전세 노인이 열 마리 가량의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인적이 없으니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을 거였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자 강아지들이 웬 낯선 방문객인가 하여 쫓아오면서 경경 짖는다.

우물가의 동백꽃

50년 전 마을의 집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도에 그려놓는 동안에도 강아지들은 줄곧 따라다녔다. 동쪽 우물을 도리술처럼 감싸안은 대나무들은 우물 속의 물그림자에도 뻑뻑하게 들어차서 물기를 머금고 있다. 이 우물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바위틈 새로 솟는 물이다. 샘물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다고 했다.

마을의 서편에 있는 우물가 역시 돌틈으로 솟는 샘물인데, 이 샘물은 계곡 서편의 밭에서 양수기를 통해 끌어다 쓰고 있었다. 이 서편에는 우



▲ 영남동의 서쪽 우물. 우물가의 물팡엔 이끼만 가득하고.

물이 두 개 있는데, 위쪽의 우물은 말라들어 있다. 말라붙은 우물에 동백꽃이 떨어져 벌겍게 상기되어 있다.

아래쪽 우물에는 물이 고여 있다. 마르지 않는 물. 물가에는 개구리들 몇 마리가 헤엄쳐 다니는 것이 보였다. 우물을 잘 살펴보면, 사람이 드나들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물을 뜨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짚고 섰을 돌팡이 허벅을 올리고 지기 위한 선반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다.

마을 중앙에 서면 남쪽으로 고군산과 고군산의 서녘 끝으로 범섬이 같이 걸려 있는데, 첩탐이 눈에 거슬렸다. 제주도의 오름 곳곳마다 낙서처럼 풍광을 가리는 첩탐들이 들어서 있다.

마을에 세개 있던 연자방아는 개발 바람에 골동품으로 누가 가져갔는지 부서진 연자방아만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연자방아마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마을의 흔적들은 하나씩 사라져 가는 것이다. 빈 밭들 군데군데 먼저 자란 유채들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벌써 사월이 오려는가.

현장 조사 채록을 하고 돌아오는 저녁은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 영주산 남쪽 첫마을에서 빠져나온 차는 산의 북쪽 마을을 향해 달린다. 차 안의 카세트에서는 박은옥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흘러나온다.

‘저 들에 불을 놓아 그 연기 들판 가득히...’

이젠 젊은 내 마음에 불을 놓을 차례다.

▲ 영남동에서 확인된 4·3희생자 명단

姜癸河 (여 29세), 金斗七 (남 57세), 김두칠 딸(여 5세), 金斗行 (남 57세),
金奉成 (남 50세), 金順烈 (여 10세), 金順玉 (여 7세), 金順化 (여 18세),
金昇浩 (남 13세), 金辛生 (여 17세), 金元旭 (남 30세), 金元春 (여 16세),
金元出 (남 14세), 金元禧 (남 23세), 金宗洙 (남 8세), 金昌憲 (남 33세),
金昌勳 (남 26세), 金春善 (여 28세), 金春玉 (여 16세), 金春元 (여 20세),
文斗堅 (남 8세), 문두견 조모(여 68세), 文斗玉 (남 42세), 문두옥 아들(남 2세),
文斗贊 (남 13세), 文斗弘 (남 21세), 文汝玉 (여 25세), 文玉生 (여 19세),
文日生 (여 42세), 文平生 (여 25세), 文必權 (남 67세), 文必元 (남 22세),
朴庚生 (여 38세), 吳榮二 (남 34세), 吳鍾富 (남 1세), 吳禎茂 (여 3세),
李鳳 (여 33세), 吳月善 (여 25세), 吳鍾勳 (남 10세), 吳鍾元 (남 12세),
李菊 (여 58세), 李東化 (남 26세), 李炳化 (남 21세), 李子春 (남 61세),
李天玉 (남 33세), 이천옥 아들(남 1세), 洪烈 (여 60세)

